

2021년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사랑 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MS 회원

강금화 강남정 강동건 강수영 강순자 강안나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계수정 고경남 고경춘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정숙 곽경자 곽미란 곽승현 구본정 구인순 권경숙 권구철 권기웅 권수미 권여정 권영균 권용운 권현명 김갑훈 김경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경희 김광명 김규자 김나연 김대원 김명승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 김미현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복순 김상범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성남 김성숙 김성예 김성현 김세영 김세원 김세영 김세은 김소연 김소레 김시화 김신실 김신예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란 김영수 김영희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용숙 김우란 김원순 김유영 김윤정 김은경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인순 김인애 김일순 김재숙 김재원 김정순 김정윤 김정인 김정호 김종예 김종일 김주아 김주원 김주택 김주현 김중기 김중렬 김지선 김진아 김진원 김진호 김춘애 김춘기 김태미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태련 김행미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자 김형재 김형진 김형채 김혜경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홍희 김효순 김훈혜 김휴희 김홍주 김희정 나아란 나애란 나종하 남궁성 남궁신 남궁혜경 남윤숙 노미화 노진 모지영 문복희 문정은 문정인 문정자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박경선 박경화 박광애 박귀영 박근연 박민경 박병준 박상근 박서정 박선영 박성옥 박성희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승미 박승희 박양숙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유희 박은희 박인숙 박점례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종권 박종문 박종임 박주경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우 박진찬 박진현 박해동 박해숙 박현경 박희경 반정인 반준우 방기심 방지연 방현숙 배민희 배서현 백수정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선창민 성경자 성곡숙 성화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행덕 손희경 손희경 송계화 송명숙 송미숙 송인옥 송재울 송주명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선우 신선혜 신영란 신우섭 신재희 신정현 신종훈 심수연 심하진 심형창 심홍순 안미숙 안복희 안성민 안인숙 안재홍 안지원 안진희 안춘미 양상국 양승례 양애숙 양은정 엄태용 연영진 오기백 오다혜 오수현 오우영 오종택 오진영 오진영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우유선 우지민 원용열 원유정 원유정 원정환 유미영 유보라 유애희 유윤석 유진숙 유현선 유효심 유효경 윤문식 윤병선 윤보현 윤선주 윤애숙 윤영균 윤영옥 윤인숙 윤정숙 윤준구 윤희도 이강욱 이경애 이경혜 이광수 이금수 이금순 이나연 이대성 이동호 이두은 이명순 이명윤 이명재 이명화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민주 이백채 이병호 이복례 이봉운 이상희 이선순 이선아 이수연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승미 이승원 이신애 이여진 이영남 이영애 이영희 이예은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승 이은경 이은미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기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선 이종례 이주기 이주연 이주영 이지옥 이지은 이진경 이진희 이진희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춘자 이태형 이해숙 이해원 이해원 이현숙 이현주 이현지 이혜경 이혜영 이흥근 이효정 이희재 임상원 임수현 임수희 임숙영 임용서 임은선 임은정 장길수 장상화 장선심 장승철 장영진 장인남 장정옥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기철 전민자 전선우 전성원 전성혜 전수경 전순택 전영철 전은국 전지연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혜림 전혜숙 정경례 정경옥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병택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빈 정수아 정신애 정영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영환 정원대 정원재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현아 정현영 정형심 정혜정 정희백 조경오 조미경 조성환 조애진 조영근 조영숙 조윤성 조은경 조정 조현경 조현미 조현미 조현주 주수연 주은아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의연 진재수 진태을 차태수 천승원 천정인 최경숙 최난경 최미점 최상영 최상영 최선영 최숙정 최영임 최옥명 최은주 최자현 최정열 최준순 최준식 최지현 최지현 최진옥 최진옥 최해욱 최해월 최향숙 최향숙 풍영이 영어도서관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금식 한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함윤수 함유희 허공균 홍기표 홍성진 홍우정 홍윤주 홍인선 홍정민 홍정임 홍호기 황소영 황은은 황은영 황은영 황지애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황화선

평생 회원

김용숙 박상균 이해원 임정자 정수빈

일반 후원

고양YWCA이사회 김나연 승리교회 중점운동위원회 한두레자치회

미안마듭기 특별후원

건강가정직원 구인순 김경애 김춘애 김형순 남궁혜경a 문정은 박귀영 박선영 백희정 상담소직원 성경자 유호린 윤선영 윤유희 전지연 조경오 조지혜 진의연 최난경 최영임 최향숙 황혜영

후원참여방법

CMS회원 월 1만원이상 **평생회원** 100만원
일반회원 연3만원 **특별회원** 10만원이상
어린이회원 연5천원 **Y틴회원** 연5천원
물품후원 후원해 주시면 작은물품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293-01-0002-640
(예금주: 고양YWCA)

회비 사용처

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쓰입니다.
- 여성노동자 노동상담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쓰입니다.
- 노년세대들을 위해 디지털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활동과 정책제안에 쓰입니다.
- 청소년리더십개발 '주말대안학교 키다리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 진로지도 프로그램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사업에 쓰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쓰입니다.

회원가입 문의 : 031-919-404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고양 YWCA

www.kyywca.or.kr



Goyang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지난 4월3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로나 백신 AZ(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

부작용에 대한 증상들이 무시무시해 규모가 큰 병원에서 맞고 싶었으나 질병관리센터에서 예약 가능한 지정 병원은 동네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오전10시 예약을 하고 당일 아침에도 한 걱정을 하며 계속 갈등했다. 하지만 100일도 안된 조카도 봐야하고 고3 아들에게도 혹시나 몰라 맞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해 미리 맞은 지인들이 말해주대로 타이레놀 한 알을 먹고 올라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예약시간 변경하러 병원에 전화해도 못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잔뜩 긴장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감기기운이 느껴지고 목도 따끔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드디어 의사와 상담시간. 내 몸의 상태를 말했다.

의사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열 안나면 맞으세요.~"하셨다. 뭔가 일상적인 반응이었다.

역시 걱정하고 맞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다.

근육주사계열이니 몇일 빠근하길 꺼라고 하며 이상증상 환자가 한명도 없었다며 안심시켜주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후 15 ~ 30분 사이에 아낙필라시스 쇼크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접종 이후 병원 대기실에서 15분 정도 관찰 후 이상 없으면 귀가하라는 했다.

집에 와서 일상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새벽시장에서 약속이 있어 걱정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다. 3일째 되던 날 졸음이 말도 못하게 밀려왔다. 새벽시장 다녀온 피로 때문이었는지 백신을 맞은 긴장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푹 쉬었다. 그 뒤로 일주일동안 주사 맞은 부위만 욱신하고 별 이상 없이 지나갔다.

대부분의 접종 대상자들은 AZ(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은 후 혈전 사례, 뇌출혈 사례 등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작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등장하면서 AZ백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급기야 접종 대상자들은 예약을 해놓고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노 쇼가 생기는 상황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 생각이 없고 변종까지 생기는 마당에 안 맞자니 찝찝하다.

대부분 겪는 부작용 증상이 접종 후 6시간 ~ 12시간 사이 발열, 오한, 구토, 몸살 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기사를 보며 나도 45살이면 젊은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언론보도만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직접 맞은 체험자로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당일 의사와 잘 상담하고 맞는다면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간다는 결론이다.

보건복지부 측 중수분 사회 전력 반장 손영래는 "필요 이상 과도한 걱정하지 말아 달라, 접종 대상자는 최대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접종 대상자 절반이 AZ백신을 접종했다. 수천만 명이 접종해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4월 29일에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코로나 백신, 접종하기를 권장한다.

함 윤 희 회원

CONTENTS

기획기사

- 여성의 눈으로 본 3.11 후쿠시마 핵재난 10주년
- YWCA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

활동보고

-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양 여성들의 작당모임
- 우리는 그린메이커스
- 2021 회원확대운동 발대식
- 제9회 고양YWCA 한두레 정기총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활동계획

- 지구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실천

YWCA NEWS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화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 미안마를 위한 모금활동
-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규탄 기자회견

발행 | 고양 YWCA

발행인 | 윤정애

편집인 | 이경애

홍보출판 | 윤선영, 윤정애, 정수빈,

위원장 | 최향숙, 함윤희

편집 | 남궁혜경, 박선영

발행처 |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F

전화 | 031) 919-4040

팩스 | 031) 913-4042

팩번호 | 내재기획 031)968-7450

vol. 106

여름 2021

여성의 눈으로 본 3.11 후쿠시마 핵재난 10주년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환상

아직도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림픽 개최라는 부푼 꿈을 버리지 못한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지 경고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에게 간편하고 돈도 덜 드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휴과 쓰레기들을 제염 푸대에 넣어 이동시킨 뒤 이제 후쿠시마는 “안전하다” 외치는 것처럼,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림으로써 후쿠시마 핵사고는 올림픽을 위한 ‘부흥의 슬로건’ 속에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새 10주년이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를 ‘여전히 진행되는 핵재난’의 장소가 아니라, 재난을 딛고 일어난 ‘부흥’의 장소로 아무리 선전하고 미화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여전히 계속 되는 ‘피폭 후의 세계’를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감추고 지울 수 없다. 피해자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킴으로써 핵재난을 망각하게 한다. 올림픽 강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후쿠시마에서 성화를 봉송함으로써 부흥이란 희망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만, 재난 이후를 살아가는 후쿠시마 사람들은 그러한 국가의 프로젝트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다.

핵재난 이후 여성들의 삶

재난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이, 노약자들은 재난 이후 더욱 고통스런 상황으로 내몰린다. 그런데 젠더로 따지면 여성들도 남성에게 비해 재난 피해에 취약하고, 그들이 목소리와 요구들은 존중받지 못한다. 얼마전 NHK에서 후쿠시마 재난 대피소에서 벌어진 빈번하고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모든 성폭력 피해가 그렇듯 여성들은 침묵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만 한다.

한 사회의 젠더 불평등은 재난 이후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피폭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후쿠시마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 절망한다.

일상적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아이들을 비롯해 자신의 가족들이 먹는 음식들에 의해 내부피폭을 당하는 현실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빈번히 코피를 쏟는 광경을 보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의심과 불안을 입 밖으로 내기란 너무나 어렵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풍문’을 만들어내는 여자, 심지어 비(非) 국민이라고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이다. 소노 시온 감독의 영화 <희망의 나라>에서는 근접 지역으로 피난한 임산부가 피폭을 우려해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방진복을 입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 여성이 필요 이상으로 ‘엄살을 떠는’ 것으로 비난한다. 특히 마을의 리더격인 중년 남성들은 그런 행위를 남성들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정부가 자치제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지 않고 스스로 피난을 떠난 ‘자주(自主) 피난’ 여성들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피난마마’라는 조롱 속에서 피난지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기 책임’의 프레임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재난으로부터 삶을 복구하는 것이란?

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세계에서도 여성들의 고민은 공명이 되어 마침내 모이게 된다. 피폭에 대한 일상적 불안과 비난에 고립감을 느끼던 여성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자 거기에 공감한 수많은 여성들이 “나도 그렇다”는 소리로 화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 그리고 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고, 또 그 많은 모임을 연결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모임 전국네트워크’ 또한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부모들이 피폭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만들고, 정부, 지자체, 학교 등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건강피해 조사, 안전 급식, 어린이를 잠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어린이 보양(保養) 요구, 어린이 피폭 재판 등의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고립과 불안의 세계에 있던 여성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발화하기 시작했고 그 발화된 목소리들이 모여 ‘엄마들의 혁명’이라는 뜻의 잡지 <마마레보>가 만들어졌다. 이 잡지는 번역, 글쓰기, 디자인 등의 다양한 여성들의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피난자 상황과 피폭 건강조사, 핵발전소 사고 및 후속 조치에 책임을 묻는 재판, 국가 대응 문제 등에 대한 생생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루어 왔고, 지금은 관련 단행본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여성들,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방사능 피해를 가시화하면서 고립과 분열에서 연대와 공투를 모색한다. 날마다 공기중의 방사능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포스트를 철거하는 지자체의 방침에 저항하여 철거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후쿠시마 시민들, 빈번히 패소하면서도 피폭 책임을 묻는 국가소송을 계속하는 사람들….

여성의원비율, 성별격차 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더구나 후쿠시마현 시정촌 수장 전원 남성이고 지방 의회 의원 및 공부원의 관리직, 지역자치회장 등의 여성비율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방사능에 민감하고 재난의 일상에서 삶을 일으키는 여성들의 싸움은 ‘부흥의 환상’을 깨뜨리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방사능 피해를 가시화하고 생명돌봄의 책임을 환기하는 유기 미사토씨의 일러스트 ‘지키자’

재난 이후 삶을 다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난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회로 삼는 ‘재난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삶을 복구하고 재난을 막을 힘은 무엇으로 오는가? 그것은 피폭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일본여성들의 싸움에서도 보듯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온 생명 돌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고투하며 획득한 감각과 사유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과 싸우며, 재난을 막고 생명과 돌봄의 가치가 중시되는 정치 시스템과 사회문화, 사유들을 새롭게 만들어감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재난 10년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을 ‘개발’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후쿠시마 재난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본 기사는 한국YWCA연합회 2021년 3,4월호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YWCA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기 30:19)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지구에서 자행된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여성: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 최하위로,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돌봄직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열악한 주거와 노동 환경으로 폭염과 혹한의 기후위기에 직접 노출되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높은 에너지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코로나19 대유행은 재해가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변혁의 주체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성을 포함하여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게 주거 및 에너지 복지의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동시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청소년: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맞는 마지막 세대이어야 합니다. 화석 연료가 가져다주는 안락함을 선택한 이전 세대는 개발 이면의 심각한 피해를 우리 세대에게 남겼습니다. 맹목적 성장과 차별적 풍요는 사람들 간,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파란 하늘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도화 되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배제 없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덜 먹고 덜 쓰고 덜 경쟁하고 덜 이동하며, 더 나누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역 회원들: 우리 지역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과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바꿉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 협약국들이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는 지난 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로 기후 악당의 꼬리표를 달고 있으며,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는 수도권 지역에 밀집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희생을 담보한 에너지원입니다. 2030년에 2010년 대비 탄소배출 45%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중앙집권 방식의 에너지 공급에서 분권 분산 방식으로, 석탄화력과 핵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삶의 방식 변화와 함께 YWCA 회관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재생 가능한 지역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를 위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 금식 행동을 실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탈석탄·녹색금융을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연합회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양여성들의 작당모임

기후위기·코로나 19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남궁혜경 국장

"How dare you?"(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UN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대멸망의 시작점 앞에 서있으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장에 대한 신화를 이어가며 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기성세대들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이었다.

지금 우리는 유래없는 기후이상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내로 제한해야만 기후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한에 실패할 경우 코로나 19 상황은 아무 것도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인류 생존의 문제가 코앞까지 닥쳐왔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결코 미래세대의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불행히도 우리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직접 체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6개월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위기를 경험하면서 질문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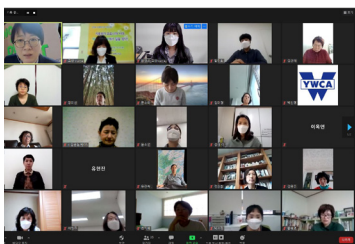
코로나 19가 끝나면 단순히 예전과 같은 방식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시스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을 고민하고 성찰하고 행동해야하지 않는가에 대한 숙제를 부여받았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우리의 그린뉴딜은 사회적 대전환의 명제,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며, 여전히 성장중심주의적인 새로운 먹거리리를 찾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통계가 입증하듯이 기후위기, 기후재난 앞에 여성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도 이 그린뉴딜정책에는 여성의 삶과 목소리는 담겨있지 못하다.

에코페미니즘은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과 여성을 희생시켜왔는지를 주목하고,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과 삶과 지역, 세계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은 이론이자 운동이다.

고양YWCA는 2021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지난 4/22일~ 10/31까지 기후위기사대, 코로나 19상황에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지역여성들과 함께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고양시의 그린뉴딜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구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문제를 다루고, 플라스틱 프리챌린지운동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어떻게 삶을 전환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



향후 결과보고회를 통해 고양시 그린뉴딜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안할 것이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역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는 그린메이커스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2000년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플라스틱 세대로 불린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으며 혈액 안에 미세플라스틱이 떠다니며 내분비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입시 교육으로 인해 학교에서 환경과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키다리학교 '그린메이커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배달 서비스 증가로 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배우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하는 청소년활동이다. 이번 키다리학교에는 중·고등학생 17명이 참여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다.

5월 1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15일, 22일에는 포장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판다는 '알맹상점'의 고나연 매니저와 양래교 대표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 등을 강의하였고 강의 이후에는 신청자들에 한해 알맹상점에 직접 방문하여 리필용기에 샴푸, 핸드워시 등을 구입하며 재사용의 중요성을 배웠다. 알맹상점 인근 망원시장은 환경운동이 활성화된 곳으로 청소년들이 '용기내' 챌린지에 도전하여 준비한 개인 용기에 고로케를 사보는 활동도 하였다.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 하는 내용들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청소년과 시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도록 키다리학교는 10월까지 고양시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키다리학교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2021 회원확대운동 발대식



2021 회원확대운동 기간은 4월 20일~6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1차 발대식을 4월 20일(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사, 위원, 직원 26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1부에는 윤선영 살림운영위원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2부에는 남궁혜경 국장이 그동안 고양YWCA에서 중점운동으로 진행하였던 성평등, 탈핵, 평화운동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3부에는 회원확대운동의 일정과 계획,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였다.

회원확대운동은 회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회원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YWCA운동에 참여할 회원을 발굴하며, 회원확대를 통하여 목적사업의 재정을 확보하고, YWCA의 이미지를 지역사회에서 제고하기 위한 운동이다. 작년 코로나19의 문제로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은 수의 회원이 감소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평생회원의 CMS가입을 증가와 CMS회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9회 고양YWCA 한두레 정기총회



고양YWCA한두레가사자치회 제9회 정기총회를 5월11일(화) 오후6시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다. 35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21년 예산안심의, 신임회장의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임과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고 구인의 수도 줄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뎌준 것에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회장선출에 전임회장과 임원들이 2년 더 연임하기로 하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40만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4월 29일 드디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966년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가사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래 55년 동안, 약 50만여 명의 돌봄직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는 제21대 국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선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대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당사자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 공익적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2010년부터 여러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는 물론 한국노총, 대리주부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협력했다.

특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1만 여 명의 돌봄회원들은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1년 4월 29일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지구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실천 -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운동' 함께 해요!!

남궁혜경 국장



코로나 19로 시작된 폭발적인 비대면서비스의 확장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6년 10월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이하 EUROMAP)는 '세계 63개국의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61.97kg으로, 벨기에에 이어 2위였다.(미국 48.78kg, 중국 24.09kg)



수많은 쓰레기 중 가장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 땅속에서 분해되는 데만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엔무역개발협약(UNCTAD)의 2020. 7월 27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발생한 플라스틱의 약 75%가 매립지를 가득 채우고 바다에 떠다니며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율은 약 90%이며, 그 양은 약 1억 5천만톤이며,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분해되는 기간은 약 450년이다)

삶의 편리성을 위해 생산하고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내분비계 기능을 교란해 우리 몸을 공격한다.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밥상을 점령하고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어떻게 될까?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포장재 중 재활용 비율은 14%고, 쓰레기로 처리된 비율이 86%였고, 재활용 14%에서 제대로된 재활용 사례는 단 2%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재질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재활용되기 매우 어려운 물질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단위에서 플라스틱 챌린지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다.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변화로 포장재없는 물품과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적인 대안물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샵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양YWCA는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운동을 진행 중이다. 14일간 매일 매일 배출하는 플라스틱 일지를 기록해서 개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기업이 변화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 일상에서도 노력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나 소 직접 플라스틱 일지

· 일지 : 1월 14일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유리	종이	금속	음식물	기타	총합	재활용률	처리량	비율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총합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기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화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고양YWCA는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기념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심화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라는 주제로 고양시 113인 평등선언을 온라인 인증샷 릴레이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내가 바라는 성평등한 세상은?’ 이라고 적힌 피켓에 각자가 정의하는 생각을 담아 인증샷을 찍은 후 개인 및 기관 SNS에 올리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고양시민 113명이 참여한 평등선언에는 고양시 시민단체 21곳과 국회의원, 시장 및 시·도의원들도 참여하여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였다.

미얀마를 위한 모금활동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지하며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모금액은 한국YWCA와 미얀마YWCA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생필품 지원과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규탄 기자회견



4월 19일(월) 고양YWCA는 한국YWCA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일본과 주변국은 물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이 접하고 있는 태평양 바다는 전 세계의 자원이다. 따라서 자국의 얽은 이익만을 꾀하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해양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에 YWCA는 일본 정부가 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국내의 시민들, 그리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후원물품 지원



지난 4월1일(목) (주)리즈코스에서 폼클렌징 9,619개를 후원해 주셨다. 코로나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내업체에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기관에 후원해 주셨다. 후원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을 하였다.

또한 우인공조 냉난방시스템 최한일 대표께서 고양YWCA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음을 아시고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주셨다. 모든 직원들이 어려움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여성이동(방문)노동자 집중상담]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6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여성 이동(방문)노동자(가스검침원, 계기검침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집중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업재해,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을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진행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 상담 기간 이후에도 여성 이동(방문)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 ONE-STOP 현장 상담소]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는 일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일산동부경찰서 내 피해자통합지원실에서 '가정폭력 ONE-STOP 현장 상담소'를 시범 운영하였다. 'ONE-STOP 현장 상담소'는 대상자가 조사에서 상담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과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6월 말까지 'ONE-STOP 현장 상담소'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현장상담소 개소로 보다 신속하면서도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 어울림 한마당]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2일(토) '제12회 모두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하였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매년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들을 위한 공연 및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들을 위한 아버지교육 특강, 가족 요리 체험, 마술공연 관람 및 마술사 체험, 가족사진 공모전 등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되었다.

또한, 센터 앞에서는 미니 부스를 운영하여, 센터 및 사업에 대해 알리고, OX퀴즈, 포토존 등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축제는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생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